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3호 【루계 제2481호】

주체107(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음력 2월 8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참된 삶과 만복을 누려가고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조선은 함북도 북부지역에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짧은 기간에 가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인민사랑의 전설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것이다고 토로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있는 조선을 직접 보았다.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가 희한한 새 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조선이 문명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인터네트홈페지 《레디트》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세심한 지도밑에 려명거리가 완공되였다, 조선은 2015년에도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잡고 훌륭한 가구들까지 갖추어진 고급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고 전하였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국가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조선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아이들의 궁전들을 돌아보며 터치는 외국의 벗들의 목소리 또한 격조높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신동들이다. 가정에서 한명의 아이를 키우자고 해도 숱한 품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간둥이들이 나라의 혜택속에 자라나고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스위스공산당 총비서는 조선에서는 후대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중대사로 여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방문기간 평양중등학원에서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 훌륭한 교육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학원에서 원아들은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당속에 학원의 원아들은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생활하면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후대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말하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한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원은 원아들을 위해 이렇듯 최상급의 보육기지를 꾸려주고 그들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봐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여주신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위대한 천품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공화국을 방문한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하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병원들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멋진 대중체육봉사기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있다.

참관을 통하여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업적에 대해서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서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를 보았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무상치료제, 무료의 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은 참으로 본받을만 한 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참다운 인민의 락원이다.》

정녕 공화국정부의 시책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어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을 떠나서 어찌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의 나라로 세계만방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매혹적인 나라 조선

외국인들 격찬

《조선에 대한 서방의 선전은 온통 모순과 허위로 일관되여있다.

조선방문은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로잡아주었다.

내가 본 조선은 테로공격이나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와 같은 불안정요소가 전혀 없는 나라였다.

평양의 거리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깨끗하였으며 오가는 사람들은 씩씩하고 명랑해보였다.

대동강반에 일떠선 웅장화려한 고층살림집들에서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살고있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신조로 삼고 사대를 배격하면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발전된 사회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은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에 실린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의 조선방문인상기이다.

최근 공화국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은 서방언론들의 외곡된 선전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들의 조선방문소감을 련이어 발표하고있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방문의 나날 만리마의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평양의 모습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목격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해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립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조선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아프리카나라들이 정치와 경제, 국방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조선에서는 훌륭한 정치,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있으며 인민의 복리가 우선시되고있다.

조선인민은 내가 많은 나라를 돌아보며 만나본 사람들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례절이 밝은 인민이였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국서기장은 조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것은 한갖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나라에 가면 보고싶은것을 자유롭게 볼수 있다, 조선처럼 안정이 보장된 나라는 없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살림집도 국가가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해주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오스트랄리아 통일려행사 사장은 조선은 아주 매혹적인 나라이며 세상에 조선과 같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실지로 조선에 가보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고 강조하였다.

쓰르비아와 뽈스까의 관광객들도 조선은 서방언론이 떠드는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이다,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고 조선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깨여났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이 전쟁전야가 아닌가고 하면서 조선에 가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허나 조선에서는 평범한 생활이 흐르고있으며 전쟁에 대해서는 서방언론들속에서나 나돌고있다, 서방식사고방식과 관점을 가지고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옳바로 리해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이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조선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극진히 사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재능과 소질에 따라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들의 궁전이다.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선택은 응당 존중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락관을 가지고 보다 훌륭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 진수

단천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황금해》호계렬의 380hp고기배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정초부터 현대적인 고기배를 뭇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를 빠른 기간안에 무어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대소한의 맵짠 추위속에서도 배무이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생산자대중과 숨결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은 수산성과의 련계밑에 철판과 용접봉을 비롯한 각종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였다.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배설계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였으며 련관단위인 홍남배부속품공장과 락원수산사업소에서는 배무이를 앞당기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협동생산품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지난해의 배무이경험에 기초하여 어로공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선실을 넓히고 항행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선체제작과 조립을 맡은 선체수리직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말까지 여러개의 선체토막들을 전부 제작하고 새해 정초부터 선체조립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가공종합작업반에서는 선체조립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추진기축을 비롯한 각종 부분품가공속도를 높여 계획된 기일안에 생산을 완료하였다.

기관수리직장에서는 로력조직을 잘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변속기, 전동장치 등 주요부분품조립을 앞당기고 계통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전기종합작업반에서는 모든 전기장치설치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소재직장에서도 배무이에 필요한 각종 단조제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강력을 발휘하여 무어낸 《황금해》호계렬의 고기배진수식이 지난 18일에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주체철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그가 누구이든 조선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통일애국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때만이 비로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리념이 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맞게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단합의 리념으로 될 때 민족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겨레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적요구에 부합되고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민족공동의 리념이 바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밝혀져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6.15통일시대에 우리민족끼리 리념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는데서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 시기 조국통일운동은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고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뛰여넘어 온 민족이 참가하는 거족적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전민족적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여 백두로부터 한나에 이르는 온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환희로 들끓고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매혹된 해내외의 온 겨레는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올수 있었다. 하여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소중하게 자리잡게 되였다.

최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은 화해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을 반영하여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에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고 국제경기에 북남단일팀으로 출전도 하였으며 태권도 합동시범출연의 흐뭇한 광경도 펼쳐보이였다. 그날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둘이 합쳐져 더 큰 하나가 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

현시기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을 반영하여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며 망국의 길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여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도 민족우에 외세를 올려놓고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면서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소동에 계속 미쳐날뛰고있다.

온 겨레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의 기치, 민족단합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화해와 관계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와야 할것이다.

허도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2018년 사업계획 확정,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할 의지 표명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서울에서 중앙위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올해 사업의 기치를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로 정하고 주요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파기를 비롯하여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관계를 청산할수 있는 사업과 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나가기로 확정하고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릴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탁월한 령도

나라의 교육현실이 날로 변모되고있다.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등일반교육체계가 개선되고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완비되고있다. 소학교로부터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들의 교육환경과 조건이 끊임없이 개선되여 그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은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로 꾸려지였고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학으로 개건되였다.

지식경제시대와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발전하는 공화국의 교육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비범한 령도의 결실이다.

교육이 발전하여야 나라가 발전하고 흥한다. 국력이나 문명정도는 교육수준에 의하여 중요하게 좌우된다.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토양이다.》, 《생산은 오늘, 과학은 래일, 교육은 모레》라는 격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교육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오늘날 인재들에 의하여 국력과 경제발전이 좌우되는 지식경제시대의 추이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건설하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새세대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만들자는것이 그이께서 내세우신 교육혁명의 목표이다.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수준이 높아야 앞날의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세계교육발전추세와 나라의 교육실태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하여 나라의 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미래사랑과 비범한 교육중시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국가의 법령이 발포되였고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앞으로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할수 있는 기초를 쌓을수 있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단지 학제를 더 늘이는데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교육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다.

중등일반교육뿐아니라 고등교육체계를 갱신하고 정비하며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하여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는 문제, 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교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몇해전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현대화의 신호탄이 이 대학에서 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개선강화하여 건축교육에서 중심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속에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고 해당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종합대학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여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각급 학교들에서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이 현대화되고 교수와 실험실습과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며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만드는데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하자면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공부만 하게 할것이 아니라 체육도 하고 유희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에 따라 각지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며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펴고있다.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육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각별하다. 그이께서는 교육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도록 하는데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주택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에는 교육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가꾸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시는 두터운 믿음과 크나큰 사랑이 어리여있다.

그이께서 지난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하고 온 나라에 교육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올해 1월에는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고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교육의 영재를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백명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내부

평양초등학원에서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몸소 고쳐주신 이름

주체101(2012)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되고있는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산원 유선쎈터(당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설계도면까지 보아주신 대상이라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병원건설과 관련하여 마음을 많이 쓰시였다고 하시였다. 이미 그해 1월에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유선쎈터라는 이름이 적합한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견을 물어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여기에서는 유선증과 유선암에 대하여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기때문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다고, 학술적으로 탈선되지 않을뿐아니라 유선쎈터라고 하는것보다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사랑어린 《애국풀》

주체104(2015)년 8월 어느 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농장에서 축산용사료풀을 새로 육종해냈다는것을 아시고 삼복철의 무더위속에서 그곳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사료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포전에 들어서시여 키높이 자라고있는 먹이작물을 보고 또 보시였다. 영양가와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사료풀의 이름을 《애국풀》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축산에서 기본은 종자와 사료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볼 때 《애국풀》은 축산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먹이작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애국풀》이라는 이름에는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평양교원대학에서

과학기술전당에서

통일교실

조국통일3대원칙

집을 짓자면 기초가 든든하여야 한다. 기초가 약하면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수행도 마찬가지이다. 겨레가 통일이라는 큰집을 짓고 살자면 우선 기초부터 든든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 기초는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고 북과 남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게 통일위업을 바른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조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것이 7.4북남공동성명에 담겨진 조국통일3대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하고있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서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북남사이에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초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시여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측대표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확약하였다.

주체61(1972)년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북남공동성명이 공식 발표되게 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북남공동성명의 발표는 북과 남이 분렬사상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로 대서특필하였다.

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를 떠나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통일번영에 대해 말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자신인것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적재난을 피할수 없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

겨레가 통일에로 가는 길에서 북남이 합의하고 온 민족이 지지찬동한 통일의 근본원칙과 립장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이 원칙선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여 (6)

위대한 통일경륜에 감복하여

재미동포인 김성락목사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잘 알려져있는 그리스도교계의 원로였다. 그가 통일애국인사로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된데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인덕으로 그를 민족을 위한 의로운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뜨겁고 다심한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미국에서 살던 김성락목사가 처음 평양을 방문한것은 1981년 6월이였다.

공화국의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담은 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의 여러 인사들에게 보내였다. 그러한 인사들속에는 당시 미국에서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을 하던 김성락목사도 있었다. 그가 평양에 온것은 공화국의 통일립장을 직접 들어도 보고 생전에 고향땅을 한번 찾아보려는 마음에서였다.

하기에 목사는 평양에 도착한 날 자기는 조용히 와서 조용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로 말하면 1904년 평양 두단리(당시)에서 태여나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류학도 하고 교회의 목사로 오래동안 있으면서 미국정객들과의 안면이 넓은 편이였다.

조국통일만이 민족백년대계의 길이라는 지론을 주장해오면서 자신을 해외통일운동의 선두자로 자부하고있던 그는 통일문제에서 공화국의 방안에 동조하거나 말려들지 않는다는 립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고국방문의 날들이 흐르면서 목사의 완고한 립장과 편견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게 되였다.

어느날 그는 보통강반을 돌아보았는데 여기가 그전날 자기가 살던 보통강일대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보통문우에 올라 주변 땅생김새와 강줄기를 살펴보고 다시 모란봉에 올라 보통강주위를 관망하고 나서야 한겻만 비가 와도 주변이 온통 물천지가 되군 하던 이전의 토성랑이 틀림없다고 수긍하는것이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고국의 변모된 현실을 직접 보는 과정에 목사는 마음속에 품고있던 의문과 오해를 풀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성락목사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차례졌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평양에 온 그를 몸소 만나주신것이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목사를 만나신 자리에서 부친이 다니던 숭실중학교에서 공부한 선생을 만나니 더욱 반갑다고, 선생이 미국에 가서도 애국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의 력사적근원과 그 해독성, 조국통일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련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말씀해주시였다.

그리고 오찬도 베풀어주시였다. 오찬에 앞서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에게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까지 관심하시고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는 그이의 사려깊은 말씀에 목사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잠시 몸둘바를 몰라 주춤거리다가 두손을 마주 잡고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였다.

목사는 기도를 마치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담아 위대한 주석님께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지금까지 《하느님》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머리숙여 인사를 해본적이 없다는 그였지만 주석님의 높으신 덕망에 감복하여 그이께만은 허리 굽혀 큰 절을 올리고싶었던것이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목사의 인사를 만류하시며 고국의 향취가 나는 음식물을 한가지라도 더 들어보라고 권하시였다.

김성락목사는 주석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힘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번에 공화국의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잘 알게 된것만큼 미국의 정계인사들에게 전달할것이며 해외교포인사들과도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조국래왕의 길을 열어 놓은것만큼 앞으로 자주 조국을 방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부인과 아들딸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리라고 믿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성락목사는 조국방문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일체 보도를 내지 않겠다던 당초의 립장을 바꾸어 출발성명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우에 가꾸어놓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분렬된 조국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대로 통일되여야 하며 하루빨리 그 방안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숭미사대에 물젖어 공화국의 통일방안에는 절대로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던 완고한 립장에서의 극적인 전환이였다. 반공으로는 민족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심각한 자책과 반성의 결산이였고 련북통일에 여생을 바치려는 비장한 인생전환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다음해에 부인과 함께 평양에 온 김성락목사를 또다시 만나주시였으며 8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를 잊지 않으시고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김성락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절세위인을 따르는 길에 민족과 통일을 위한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황당한 궤변으로 진실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평화애호적인 제안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극적인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조미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이 경이적인 현실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에로 이어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국제사회도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통이 큰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한결같이 지지환영의사를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때 어중이떠중이들이 소가지 바르지 않게 진실을 오도하는 랑설들을 내돌리며 여론을 어지럽히고있어 내외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내부의 불순세력들과 괴뢰보수패당이다.

미국의 현직 및 전직관료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북조선이 전향적으로 나왔다.》느니, 《트럼프의 고강도제재압박전략의 효과》라느니, 《북조선이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점에 다달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느니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예상치 못한 급격한 조선반도정세변화로 외토리신세가 된 일본의 아베일당은 《북조선의 대화평화공세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의 결과》라느니, 《성급한 대화는 북조선의 시간벌기에 말려드는것》이라느니,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느니 하며 부산을 떨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것들을 비롯한 괴뢰보수패거리들과 보수언론, 전문가떨거지들도 《북이 대화에 나선것은 곤경에 빠질 때마다 쓰는 상투적수법》이라느니, 《위장평화공세》니, 《〈한〉미동맹균렬과 제재완화노림수》라느니 하며 악설을 줴쳐대고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수작질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골수에 찬자들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내외의 기대와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며 터무니없이 여론을 오도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지난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내외신들이 일치하게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이로 하여 급해맞은것은 바로 우리의 적대세력들이다.

한편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각계층의 격렬한 초불투쟁에 의해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던 박근혜역도와 보수《정권》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을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된 정세국면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의하여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는 완화국면에로 급전환하게 되였으며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의 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새해에 들어와 북남관계에서 이런 놀라운 전변이 일어나리라고 어느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는가.

열화같은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시고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비롯한 대규모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하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세위인상에 온 민족이 감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북남관계의 대전환, 그것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뜨거운 동포애, 평화수호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비상히 높아지고 국력이 강하기에 오늘과 같은 사변적인 현실도 도래할수 있은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가장 객관적이며 정확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니, 《한계점》이니 하며 소란을 피우는것이야말로 달밤에 개짖는 소리만큼이나 부질없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어중이떠중이들이 줴쳐대는것처럼 우리 경제는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주체화, 현대화의 숨결높이 보란듯이 일떠서고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적성과와 본보기들이 도처에서 창조되고있다.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하며 우리 조국땅에서는 사회주의진군가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우리는 이미 시간도 정의도 우리편에 있고 승리도 우리의것이라는데 대하여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 충분할것이다.

내외여론이 우리의 대화평화공세에 대해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질것은 다 가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아직은 북남관계도 조미관계도 모든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서로 상대의 의중도 모르는 때에 당사자들이 마주앉기도 전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분위기를 흐려놓으며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이야말로 좀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쓸데없는 입방아질은 누워서 침뱉기나 같은것이며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에 수긍한 당국자들을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을뿐이다.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가지고 매사에 심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하여야 할 때이라는것을 상기시킨다.

시비군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똑바로 보고 진실을 오도하는 유치한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시)

통일의 봄이여 오라

권 헌 (재중동포)

세계가 지켜보는 조선에서
평화의 사절들이 평창에 왔구나
통일을 갈망하는 조국인민들이
대표단, 예술단, 응원단을 무어서
하늘과 땅, 바다로 경계선 뚫고
서울로, 강릉으로, 평창으로 왔노니
만나니 서로의 오해불신 풀리고
대결로 얼었던 장벽 녹아내리고
화해와 대화로 전쟁의 위기막는
평화의 분위기 이 땅에 심었으니
통일의 억센 의지 세계는 보았다

일제의 노예로 고통을 겪고
외세의 분렬로 아픔을 겪는
수천년 단일민족 함께 살아오던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이 겨레가
어이하여 아직도 북남으로 잘려
부모형제 애타게 서로 찾고 우는가
원한서린 분계선은 누가 그었나
분단의 설음이 삼천리에 흐른다
우리 서로 만나는 통일이여 오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제2의 6.15자주통일시대 만들자

통일은 민심이요 민중의 초불로
통일역적 적폐들은 옥사하리라
모처럼 모인 경사 재가루 뿌리며
진심을 외면하고 욕하는자 있어
반민족《자유한국당》에 알려
주노라
조선은 제재를 겁내지 않았거늘
자강의 마치는 제재를 짓부시고
무적의 군력은 평화를 지키노니
비약하는 조선의 참모습을 보라
치솟는 기념비적창조물을 보라

사랑하는 동포형제들이여
만나면 반갑고 헤여지면 그리운
우리는 한피줄 형제동포들이다
갈라져 살수 없는 혈육의 정 안고
상봉의 감격과 기쁨의 마음담아
올림픽 평화경사로 축복하면서
절절한 노래 아픈 마음 달래주고
씩씩한 자태로 용기와 힘을 주는
북녘의 처녀들과 함께 노래하자
더 크게 부르자 온 세상이 들썩하게
통일의 새 시대 함께 열어나가자

민족의 통일진군을 막을수 없다

세계앞에 북과 남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우리 겨레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에 북과 남이 마음먹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통일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체험하였으며 통일을 반대하는 분렬주의세력이 제아무리 발광해도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결코 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다 아는것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분렬주의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참가를 막고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동족대결에 찌든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이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면 《북의 체제선전장》, 《평양올림픽》이 될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동족의 화해노력을 깎아내리고 파탄시켜보려고 갖은 역겨운 추태를 다 부리였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파견되는 공화국예술단이 묵호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대북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걸고들었는가 하면 서울역광장과 인천시의 어느 한 빙상경기장앞에서는 극우보수단체깡패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대결집회를 련이어 벌려놓고 《평양올림픽을 반대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기, 통일기를 찢고 불태우는 특대형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의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92》호가 도착하는 묵호항에 몰려와 《평양올림픽반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빨갱이배가 들어온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줴치면서 악을 써댔다.

공화국정부의 고위급대표단이 남측을 방문하게 되였을 때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미쳐날뛴 천하의 역적무리도 다름아닌 보수세력들이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보수역적패거리들이 떠들던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대규모통일사절단들의 파견으로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북과 남이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준 통일올림픽으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완화시키는 평화올림픽으로 되게 되였다.

올림픽개막식장에 북남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단일팀을 무어 경기에 출전하는가 하면 공화국의 예술단이 성대한 경축공연을 하고 응원단이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 온 세계가 놀라움과 지지를 표시하는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이며 긍정적인 정세흐름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소중히 여기고 대표단파견 등으로 최대의 성의를 다해 도운 공화국의 노력이 얼마나 민족과 통일을 위한 의롭고 정당한 노력이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와 반면에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대표단파견에 대해 갖은 비방을 일삼은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추한짓도 가리지 않는 인간추물들이고 반역패당이라는것을 여실히 반증해주었다.

하기에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동족대결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화해와 관계개선, 통일을 바라는 민심을 돌려세울수 없다.

화해와 통일은 조선반도의 대세이고 그 도도한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동족대결의 추태를 계속 부려대고있는것을 보면 그 못된 버릇은 죽어야만 고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민족작가로서 책임을 다하자》

지난 10일 남조선 서울에서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민족대단합, 자주적인 민족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강령으로 하고있는 진보적인 작가들의 모임인 민족작가련합 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발표된 창립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우리 민중은 1 700만개 초불을 들어 부정부패, 사대매국,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비로소 혁명을 시작하였다.

로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은 성조기를 휘날리며 청산되여야 할 외세를 등에 업고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민족적행위를 자행하며 꺼져가는 반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다.

남북이 단합된 힘으로 겨울철올림픽대회를 《평화올림픽》으로 성사시켜 온 민족이 통일의 새 희망으로 력사적대사변기를 맞이하고있는데 외세는 이를 방해하고있다.

우리는 민중해방, 민족통일을 향하여 민족작가련합의 기발을 높이 들고 계속 전진하며 싸워나갈것이다.

특히 예술가는 시대적요구를 받아안고 잘 벼려진 예술을 무기삼아 민중과 민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간의 본성을 진실하게 밝혀내여 남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예술은 인간을 력사의 주체로 만드는 용광로이다.

민족작가련합은 진실을 밝혀내는 참된 예술적힘으로 력사를 이끌어가는데 한몸이 될것임을 선언한다.

— 외세의 침략과 지배, 탐관오리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중의 투쟁을 예술적으로 형상하여 인간의 주체성,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희망을 제시하며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 분단조국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원적성찰과 삶의 방식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고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문화공동체를 추구하여 민족의 화합에 기여한다.

—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악덕자본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로동자들과 련대하며 인간의 성스러운 로동을 찾기 위한 로동해방예술작품을 창작한다.

— 자연과 인간, 사회와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며 인간생명의 존엄을 극단적으로 해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있는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가를 밝혀내는 인간학의 예술을 발전시킨다.

— 근대 이후 일본제국주의와 서방의 근대주의에 물들어 퇴색해가는 민족어의 옳바른 재생과 부흥을 위해 민족작가로서 책임을 다한다.

본사기자

화해와 관계개선은 막을수 없는 흐름

지금 북과 남은 화해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다.

절세위인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회담과 일련의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였고 그에 따라 남조선에서 열린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이 파견되였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12차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도 공화국의 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할수 없었던 특기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세계도 경탄의 시선을 보내고있다.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고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따뜻한 봄을 안아오려는것은 온 겨레의 지향이고 이제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조선반도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지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승화시켜 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며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이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남조선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인사까지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전과정은 한번 잡은 손놓지 않고 기어이 통일을 앞당겨오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북과 남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아리랑》노래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여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자주통일의지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또한 녀자빙상호케이종목에서의 북남단일팀의 구성과 경기활동은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기장들에서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화국의 응원단과 남녘의 관중이 함께 터친 《우리는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힘찬 함성, 그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통일에로 가자는 겨레의 피타는 가슴속웨침이였다.

공화국 예술단의 축하공연과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를 본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 공연의 열기가 휴전선에도 전달되여 철조망이 봄눈처럼 녹아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태권도의 뿌리가 하나이듯 민족도 하나》이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했다.

북과 남이 마음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우리 겨레는 지금 북남관계의 보다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한 기세로 우리 겨레는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갈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조선민족의 이 거족적통일진군을 멈추어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리철민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는 도발소동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를 흐려놓을수 있는 군사적도발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2020년까지 해외로부터 유사시 공화국의 주요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장거리공중대지상미싸일 《타우루스》 90여발을 추가로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되여있던 1차도입사업도 이달안으로 앞당겨 끝내기로 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화해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도발적행위들을 근절하고 대화와 협력의 기운을 적극 고조시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해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나 남조선군부는 이와 배치되게 불순한 대결속심을 드러내는 도발적인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장거리공중대지상미싸일 《타우루스》도입 그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킬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의 한 고리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남조선군부는 이미 지난해 《F—15K》전투기에 이 미싸일을 탑재하고 공화국의 핵심시설들에 대한 타격을 가상한 실전훈련을 벌린바 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벌려놓고있는 이러한 대결적이며 도발적인 망동은 지난시기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며 북남관계파국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한 과거 보수《정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이다. 바로 《유신》통치배들이 7.4공동성명을 채택하고도 돌아앉아서는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며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였던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가 조성된 지금 필요되는것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적도발행위가 아니라 모처럼 움터나는 민족화해의 귀중한 싹을 자래우기 위한 대담한 실천행동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똑바로 보고 옳바로 처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의 목을 조이는 미국의 통상압력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으며 그 대상에는 누구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동맹》이라며 추어주는 남조선에 통상압력을 부쩍 강화하고있는데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3차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로골적으로 남조선의 양보를 압박하고있어 협상이 진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11월 당시 《대통령》벙거지를 쓰고있던 리명박역도와 보수패거리들이 단 4분만에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강행통과시키고 다음해 3월 중순부터 발효시켜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미국자본의 먹이감으로 섬겨바친 예속문서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후과로 남조선은 경제전반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합방문서》,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락인하고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남조선경제는 미국이 제마음대로 주물러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창녀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비판을 표시하였겠는가.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은 저들의 리익에 맞게 또다시 개정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참으로 탐욕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지난해 4월 미국집권자는 《싸드》배치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하며 미국에 《불리한》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페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놓고 당시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재협상이 시간문제라고 예측하였었다. 그 예측이 현실로 된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압력은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대기업체인 《제네랄모터스》회사의 경영악화를 구실로 남조선지사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페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남조선이 수출하는 세탁기와 태양빛전지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남조선의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무역제재조치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88%가 40~60%이상의 반투매관세를 부과받고있으므로 앞으로 고률관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남조선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더 많은 리윤을 악착하게 짜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본색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시키고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3차협상에서 자동차시장추가개방과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압박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원래 동맹이라는것은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맺어지는 나라들사이의 련합이나 긴밀한 련계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서로의 《가치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평등한 《동맹관계》나 진실한 《우방관계》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예속동맹, 종속동맹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동맹이다.

그것은 《자유무역협정》뿐아니라 《호상방위조약》, 《행정협정》을 비롯한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많은 조약들과 협정들이 모두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내용들로 되여있으며 북침전쟁을 위한 군사적예속으로 일관된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굴종의 《동맹》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조선은 불평등을 강요하는 《자유무역협정》개정은 물론 끝이 없는 예속과 굴욕의 진펄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권력야욕때문에 《국민약속》도 집어던진다

지금 남조선정계는 《헌법개정》문제로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19일 남조선당국은 여야당들이 《헌법개정》과 관련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의 명의로 오는 26일 발의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헌법개정안》이 5월 25일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여야 지방자치제선거(6월 13일)에서 투표에 붙일수 있기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60일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여있기때문에 26일전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5월 25일을 넘기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의 《헌법개정안》발표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부》가 《국회》를 뛰여넘으려 하고있다, 《관제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리석은짓이다, 《선거용개헌》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현 당국과 여당이 《헌법개정안》초안에 현재의 《대통령 5년단임제》를 《대통령 4년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제왕적대통령제》를 지속시키려는 술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책임총리제》를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우겨대며 치렬하게 대립하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 《헌법개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된것은 비단 지금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1987년 6월인민항쟁으로 마련된 《대통령직선제》이후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하여 《헌법개정》문제는 정계에 자주 등장하였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헌법개정》을 《공약》에 쪼아박고 권력을 잡으면 저들이 실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제가 한 《공약》까지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내들면서 《헌법개정》을 반대하고있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이제 얼마안있어 지방자치제선거가 있게 된다. 이 선거를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보수세력들을 규합하여 재집권의 발판을 닦아보려 하고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개정》문제로 보수세력들이 분렬되게 될것이 두려워 《공약》마저 줴버리고 《헌법개정》문제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정당들의 추태에 남조선민심은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에서 《민가협 33차 정기총회》 진행,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17일 서울에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33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총회에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량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축사를 통해 미국에 의해 여러가지 수난을 당해온 치욕의 력사가 100여년이 넘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과 모욕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분렬적페증의 적페인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낼 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다고 하면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면 그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민가협은 총회결의문을 통해 2017년 초불혁명을 만들었던 힘으로 적페청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계속 벌려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범죄를 부인하는 리명박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비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이 특대형부정부패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서까지 조금도 부끄러워할줄 모르는 리명박과 이를 비호두둔하며 《정치보복》을 떠드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명박이 《성실히 조사에 림하겠다.》고 하고는 범죄혐의를 모두 부인하고있는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면서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는 모두 《자유한국당》계렬의 《대통령》들이였다, 이런 범죄자들과 호가호위해온 적페세력이 보수정당간판을 들고 정치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수적페세력을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범죄자들에 대해 한치의 주저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력사의 심판을 피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리명박이 끝내 구속되였다. 검찰이 제시한 구속령장청구서에는 리명박이 자동차부분품회사인 《다스》를 비밀리에 소유, 운영하면서 12년간 횡령 등의 방법으로 3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지적되여있다. 또 110억원에 달하는 뢰물수수, 직권람용,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수수》 등 범죄혐의를 기록한 구속령장청구서가 200페지가 넘고 구속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는 1 000페지가 넘는다고 한다.

검찰관계자들은 리명박의 범죄사건에 대해 《박근혜와 비교해볼 때 범죄혐의가 질적, 량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다스〉의 차명보유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BBK수사나 이듬해 특검팀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부정부패의 왕초, 특대형범죄자인 리명박의 죄행이 적라라하게 드러난것이다.

자기의 범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어떻게 하나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였다. 자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떠들며 여론의 동정을 사보려 하는가 하면 검찰조사에서는 압수된 문서들이 《조작된 문서》라고 우기고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본인이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측근들이 한 일이다.》라고 부인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밖에 표현할수 없는 행위이다.

남조선의 야당인사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리명박의 이러한 추태를 두고 《MB는 돈을 벌려고 〈대통령〉을 했다.》, 《범죄혐의로만 기니스기록감이다.》고 단죄하였다.

리명박이 끝내 구속된것은 추악한 범죄자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우려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고 응당한 결과이다. 특대형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천하의 못된짓만 골라해온 리명박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수 없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철민

적페정당의 어리석은 선거놀음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들은 사회각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아예 당내경선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인천, 부산, 울산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들에 당내에서 그중 경쟁력있다는 인물들을 출마시켜 여당후보와 대결해보려 하고있다.

한편 갈수록 멀어져가는 민심을 끌어당길 심산밑에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들에 《중산층》, 《서민》이라는 단어를 박아넣도록 하고 《세금인하》, 《소상공인지원》을 비롯한 선심성 《정책공약》들을 람발하면서 추악하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재집권의 꿈을 실현해보려는 보수패당의 흉심의 발로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에서 주요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보수패당들이 약국의 감초처럼 내드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이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반대로 《보수세력이 득세하면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왔다. 실지로 보수패거리들이 집권한 기간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면치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최대로 증대되였었다.

보수패당이 내외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재앙단지인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인것만 보아도 이 전쟁당의 정체를 잘 알수 있다.

원래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는것은 남조선을 보호하자는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싸드》배비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보수역적패당이 《북의 위협》과 《불가피한 선택》을 떠들며 《싸드》배치를 강행함으로써 남조선이 외세의 치렬한 대결마당으로 전락되게 되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남조선인민들은 그 직접적피해자로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올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대범한 결단과 성의있는 노력을 두고 그 무슨 《리간질》, 《화전량면전술》이라고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남조선을 방문한 공화국의 예술단과 선수단 등의 활동에 대해 갖은 악담질을 해대다 못해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의 남조선방문과 관련하여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해괴망측한 대결광대극을 연출해낸것이 바로 보수역적패당이다.

보다싶이 《안보》정당임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이 하는짓이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남조선의 안보를 해치고 대결과 전쟁망령을 부르는 미친짓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생활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또다시 《민생정당》으로 자처해나서며 기만적인 《공약》들을 오물처럼 내뱉는 뻔뻔스러운 꼴은 더욱 역스럽다.

지난 시기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대통령》으로 내세운 리명박, 박근혜가 《747공약》과 《창조경제》,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를 광고하였지만 실지로 한짓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것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9년간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를 운운하며 노죽을 부리던 리명박, 박근혜와 보수패거리들에게 완전히 우롱당하였다.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올라앉은 홍준표만 보아도 지난 검사시절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민주인사들을 마구 탄압한 악질분자이며 권력을 쫓아 간에 가 붙고 섶에 가 붙는 기회주의자이다.

이자의 독선적체질과 부정부패기질 또한 리명박, 박근혜와 결코 짝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내에서도 홍준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축출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앞으로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또다시 득세하고 이를 계기로 재집권의 발판을 닦아보려 하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민심의 버림을 받은 적페정당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불순한 대결모의판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북핵문제》와 《국방및 안보정책》과 관련한 쑥덕공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린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도 그 무슨 《동맹》강화와 《국방협력증진》문제가 론의되였다.

조선반도에서 펼쳐지고있는 화해와 완화의 흐름에 배치되는 불순한 대결모의판이 아닐수 없다.

외세와의 이러한 공모결탁으로 남조선이 얻자고 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북과 남은 물론 국제사회계도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평화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북남관계발전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이를 달가와하지 않고 왼새끼를 꼬고있는 일본이나 미국을 찾아가 남조선이 《북핵문제》를 전면에 내들고 모의판을 벌려놓고있으니 이것이 정세완화흐름에 역행하는 대결망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꾜에서의 《안보정책협의회》가 있은 다음날인 16일 일본의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미소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심보사나운 외세에게 빌붙어 《공조》를 론의하는것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망치고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하는 길이다.

온 겨레가 바라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만평 구 걸 질

아이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생산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다.

봄을 맞아 길가의 잔디며 가로수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나고있었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에 들어선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원료저장고였다. 수천t능력의 원료저장고에서 콩우유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출하되고있었다.

《이 콩들은 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콩입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올해 콩우유생산에 필요한 수천t의 콩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일군은 이렇게 년간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그득히 쌓아놓고있으니 원료걱정이 없어 콩우유생산을 꽝꽝 내밀고있다며 흡족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그는 주체103(2014)년 12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생산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이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원료보장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즉석에서 다 풀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이자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콩우유가루직장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콩우유생산을 다그치고있었다. 더 많은 콩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일손을 다그쳐가고있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있다는 자각,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콩우유가 아이들에게 가닿게 되고 그것을 마시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리영희직장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는 공장이 지난 수십년동안 해마다 맡겨진 생산계획을 못해본적이 없다고,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아이들이 즐겨마시는 콩우유에 공장종업원들의 이렇듯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콩우유주입기에서 흰 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내리는 콩우유를 무심히 볼수 없었다.

콩신젖직장에서도 탁아소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콩신젖을 한창 생산하고있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 무인화되여 적은 로력을 가지고도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는 모습은 볼만했다. 공장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받들고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생산현장의 모든 요소가 무균화, 무진화되여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는데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와 갖가지 질좋은 어린이식료품들이 꽉 들어찬 제품견본실을 보면서도 높은 수준에 이른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수준과 이 공장 종업원들이 지닌 자력갱생의 일본새를 더 잘 알수 있었다.

이어 우리가 찾은 애기젖가루직장과 영양암가루직장에서도 다른 직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애기젖가루며 영양암가루, 각종 남새가루, 다시마가루, 물고기가루와 같은 다종다양한 어린이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굳센 의지를 지니고 만난을 헤쳐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힘찬 발걸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이 땅, 이 하늘아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을 아이들의 웃음띤 밝은 얼굴을 그려보며 우리는 공장정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박철남

사랑의 왕차를 타고

우리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고 나올 때 마당에서는 한창 콩우유를 차에 싣고있었다.

동행한 일군이 평양시내의 각곳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서 꼭같은 시간에 콩우유를 공급해야 하기때문에 먼곳을 담당한 차들부터 콩우유를 싣고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윽고 콩우유를 실은 차들이 경쾌하게 경적소리를 울리며 맡은 지구들을 향해 떠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중구역지구의 탁아소, 유치원들과 학교들을 찾아 떠나는 콩우유차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콩우유를 가득 실은 차는 평양시내를 기세좋게 달렸다.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들도 콩우유차에 먼저 길을 내여주고 길가던 사람들도 반기며 손을 저어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금철운전사는 콩우유차를 모는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많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현대적인 콩우유생산기지가 꾸려져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데 맞게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 대한 정연한 공급체계가 세워지고 콩우유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콩우유차가 생겨나게 되였다고, 그때부터 콩우유차의 동음은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어느해인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구내에 줄지어선 콩우유차들을 보게 되시였다고 한다.

그때 공장의 한 일군이 저 차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콩우유를 싣고 정상적으로 달렸다는데 대해서와 우리 인민들은 저 차를 왕차라고 부른다는데 대해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차니 왕차지.》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는것이였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야기였다.

오늘날 행성의 많은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이 꽃망울을 터치기도 전에 시들어가고있지만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부러운것없이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동서고금에 나라의 최고권력을 쥔 왕을 위한 왕차는 있어도 아이들을 위한 왕차는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그러니 밝게 웃으며 명랑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 경적소리 정답게 울리며 달리는 콩우유차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왕차가 아니겠는가.

시내를 달리던 차는 어느덧 련화소학교에 이르렀다.

좋아라 콩우유를 마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싶어 차에서 내린 우리는 이곳 학교의 콩우유공급원인 김설희를 만났다.

그는 콩우유공급시간이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 시내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마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어느덧 휴식시간, 콩우유시간이 되자 우리는 2학년 5반교실에 들렸다. 교실안에 들어서니 어린 학생들이 저마다 김이 문문 나는 따끈한 콩우유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있었다.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행복하게 자라고있는 학생들의 모습, 참으로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흐뭇한 순간이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대중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평양보링관

인민의 웃음에 깃든 은정

맑은 물결 출렁이는 풍치 하도 아름다워 예로부터 천하절경으로 불리우는 대동강반에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평양보링관이 자리잡고있다.

평양보링관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때로부터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예나지금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칠줄 모른다.

평양보링관에는 몸은 이역에 살고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숨쉬며 살고있는 총련도찌기현 상공인 권영숙동포가정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당시 일본에서 보링관을 운영하고있던 권영숙동포는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 참다운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조국인민들을 위해 보링설비들을 기증하고싶은 마음속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이러한 그의 소박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높이 평가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은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도록 하시려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권영숙동포의 지성이 깃든 보링관을 잘 건설하도록 필요한 온갖 대책을 취해주시고 보링관의 위치와 설계,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의 다심한 손길에 떠받들려 짧은 기간에 평양보링관이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김영호 평양보링관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링관의 주로가 40개이면 큰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우리 보링관에서와 같이 40개의 주로를 갖춘 보링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때문이지요. 때문에 보링관을 건설할 때 1층에 20개, 2층에 20개 이렇게 주로를 따로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링관으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오고있는데 보링관의 규모를 알고 감탄합니다.》

주체83(1994)년 2월 개관된 평양보링관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가 훌륭히 일떠선것이 만족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이으시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보링관운영을 더 잘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오늘 이곳으로는 남녀로소 누구나 찾아와 보링을 즐기고있다.

평양보링관에는 지난 기간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보링선수들만이 아닌 보링애호가들을 비롯하여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보링관을 즐겨 찾는 애호가들로 무어진 보링협회도 조직되여있다. 보링협회에서는 해마다 크고작은 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애호가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기술수준도 향상시키고있다.

김영호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업상용무로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보링관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링관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이 보링을 즐기고있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우리 보링관에서야 로동자, 사무원, 근로청년들 누구나 아무때나 와서 보링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니 지구상에 보링관은 어디에나 있어도 누구나 찾아와 희열과 랑만에 넘쳐 보링을 즐기는 이 땅의 인민들이야말로 제도복을 타고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것, 제일 훌륭한것은 응당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한다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꽃피운 행복과 랑만의 웃음소리는 평양보링관의 어디에서나 끝없이 울리고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범식

《올 때마다 보링실력이 쑥쑥 …》

지난 3월 18일, 평양보링관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링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흥성거렸다.

아침일찍 보링관을 찾는것을 보니 보링을 무척 즐기는 모양이라는 기자의 말에 웃고 떠들며 보링관에 들어서던 사람들이 저마다 《하면 할수록 좋은것이 보링이지요.》, 《보링을 하고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온몸이 거뜬해지는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며 한마디씩 했다. 그들의 마음은 벌써 보링주로에 가있는듯싶었다.

《오늘과 같은 일요일이면 손님들이 꽤나 많이 오군 합니다. 40개의 주로도 부족해서 몇십분씩 차례를 기다릴 때가 드문하답니다.》

안내하던 신주현 평양보링관 과장이 손님들로 흥성이는 보링관의 여기저기를 소개하며 하는 말이였다.

《우르르 쾅!》

둔중한 보링공들이 연해연방 웅글은 소리를 내며 쉬임없이 굴러가는 보링주로들, 보링장을 메운 사람들이 저마끔 익숙한 동작으로 보링공을 주로우에 굴린다. 쉴새없이 넘어지는 곤봉들…

보링주로에 나서면 누구나 10개의 곤봉을 단번에 넘어뜨릴 자신심이 넘치게 된다. 하지만 역시 생각과 다른것이 보링이다. 자신만만하게 보링공을 굴리였지만 몇개밖에 넘어뜨리지 못한 아쉬움에 머리를 긁적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때 한쪽에서 《야—》하는 탄성이 터졌다. 첫번째 굴리기에서 10개의 곤봉들을 단번에 넘어뜨리는 스트라이크가 나왔던것이다.

보링공을 굴렸을 때 10개의 곤봉이 유쾌한 소리를 내면서 한순간에 넘어질 때의 쾌감이란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법이다. 보링경기를 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올 때마다 보링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멋진 장면을 보여준 동대원구역에 산다는 김은옥(42살)녀성이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군 한다는 그는 남편과 초급중학교 학생인 딸과 함께 와서 다른 애호가들과 보링솜씨를 겨루던 참이였다.

알고보니 20년나마 보링을 해온다는 김은옥은 이곳 보링관의 단골손님인 동시에 남편인 김영남과 함께 보링협회에도 든 애호가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2월25일상 보링경기대회에서 여러번 1등을 하였다는 그의 보링실력은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라고 한다.

한번 공을 굴려 10개의 곤봉을 단번에 넘어뜨리는 묘리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기자에게 그는 공을 정확한 자리에 굴리고 일정한 힘과 동작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스트라이크가 나올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호기심에 끌려 보링관으로 걸음을 내짚었다가 하면 할수록 자석처럼 끌려드는 보링의 세계에 완전히 심취되여 이제는 일요일에 보링을 하는것이 하나의 일과로 되였다는 그였다.

그만이 아니라 많은 보링애호가들이 이곳에서 실력을 쌓아 두각을 나타내고있었다. 지난해 2월25일상 보링경기대회에서 일흔살 난 로인이 1등을 하였는데 그 역시 보링애호가라고 한다.

김은옥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번에는 그의 딸이 보링공을 잡았다. 오른손에 공을 들고 침착하게 주로우로 공을 굴린다. 그 모습이 보링을 하루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듯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8개의 곤봉밖에 넘어뜨리지 못했다.

《괜찮아! 잘했어.》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었다. 그러면서 《보링은 아이들도 쉽게 배울수 있고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참 좋은 운동》이라며 웃었다.

그들과 헤여진 기자는 35, 36주로에서 보링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지켜보았다. 흥분과 긴장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점수를 올리며 와 — 와 —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느라니 절로 흥이 났다.

각이한 직종,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높은 점수를 맞으면 축하도 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보링이야말로 즐거움과 랑만을 안겨주는 운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평양보링관을 찾아 시간가는줄 모르고 보링을 즐기는 남녀로소모두가 청춘이였다.

보링은 어떤 운동인가

즐거운 유희형태의 재미있는 대중체육종목인 보링은 길이 18.3m, 너비 1.66m의 나무로 된 마루의 한쪽에서 공을 굴려 다른 한쪽에 놓인 10개의 곤봉(핀)을 넘어뜨리여 넘어진 곤봉수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실내경기이다.

보링경기는 2명이상이 개인전과 단체전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3회전으로 승패를 가른다. 한회전은 10틀로 구성된다. (틀이란 10개의 곤봉을 한번 배렬한것이다.)

매 선수는 한틀에 두번 공을 던질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틀에만은 3번 던질수 있다.

곤봉 1개를 넘어뜨리면 1점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채점한다. 보링경기기재로는 보링대, 곤봉(핀), 보링공이 있다.

보링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였다는 정확한 력사자료는 전해지지 않고있다. 고대에짚트에서 오늘의 보링과 류사한 유희에 리용한것으로 추측되는 유물들이 1920년에 발굴되였는데 이것이 가장 오랜 력사적자료로 인정되고있다. 그때 발견된 유물들이 대리석으로 만든 공과 핀, 주로라는 점에서 현대보링의 기원으로 보고있다.

이렇듯 보링은 공을 굴려 곤봉을 넘어뜨리는 일종의 놀이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현재와 같은 형식의 보링경기는 중세기 유럽에서 오락의 한 형식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당시 보링경기는 9개의 곤봉을 가지고 하였으며 19세기 중엽부터 10개의 곤봉을 가지고 하였다.

1952년에 기계적수단으로 곤봉을 세우는 자동식보링대가 발명됨으로써 보링경기는 대중체육의 한 종목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1952년에 국제보링련맹(FIQ)이 창설된 후 련맹의 주최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2005년 8월에 국제보링련맹에 가입하였다.